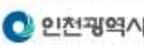


		<b>보 도 자 료</b>		<b>2025년</b> <b>수도권매립지 종료</b> 
		배포일자 2021년 6월 7일(월) 총 5매		
담당 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 공보지원협력관 신상학 ☎440-3318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 기획담당 양상훈 ☎440-2131 • 담당자 황선조 ☎440-2135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b>14:0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박 시장 “인천 독립 40년, 인천의 희망과 도약을 논하는 자리”**

- 인천독립 40년 기념행사, 6월 10일부터 사전 예약 -

- 6월 업무점검과 「K-바이오 랩 허브」 인천 유치 및 국비 확보에 만전 당부 -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중인 ‘인천 독립 40년 행사’가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인천의 희망과 도약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는 6월 7일, 6월 실국장 회의를 열고 인천독립 40년 기념행사계획(안) 등 6~7월에 계획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인천시는 인천독립 40년 행사를 지난 5월 4일 출범한 시민자문단(단장: 황규철)과 함께 준비 중인데 지난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행사 슬로건과 옛 시장관사의 새 이름을 선정하고, 6월 3일 시민자문단 회의를 통해 상징물과 대강의 행사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 시민자문단 회의를 통해 확정된 행사상징물과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먼저, 행사상징물은 40이라는 숫자와 함께 물방울이 층층이 쌓이는 모습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이 만들어온 긍지의 역사를 표현하고, 자유롭게 표현된 둥근 패턴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인천의 미래를 형상화했다.

- 오는 7월 1일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될 옛 시장관사의 이름은 「인천 시민愛집」으로 결정되어, 현재 7월 1일 행사에서 공개될 새로운 현판을 제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프로그램은 크게 ①기념·개방행사, ②언론·학술행사, ③참여·체험행사, ④전시·관람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7월 1일에는 「인천독립40주년 기념식」과 「옛 시장관사 개방행사」가 개최되고, 7월 1일을 전후해 5일 간(6.30~7.4)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 시는 6월 10일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확정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인원제한이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네이버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 행사준비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박남춘 시장은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인천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견인한 자랑스러운 도시이며, 이러한 긍지의 역사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천 시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박 시장은 “올해 6월말이면 만 3년을 맞는 민선7기에서는 그간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상처를 극복하면서 더욱 큰 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 인천형 뉴딜을 통한 인천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한 인천 환경의 치유, 민관 갈등으로 중단됐던 각종 사업의 정상화,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에 빼앗긴 공간에 대한 시민접근성 회복 등 정말 많은 일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냈다”고 강조했다.
- 박 시장은 “앞으로 남은 민선7기 1년 동안 민선7기 주요사업의 깔끔한 마무리와 함께 인천독립 40주년을 계기로 희망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편, 박 시장은 “지난 5월 28일 있었던 우리 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야를 떠나 우리 인천 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면서
- “국비 확보 건의와 함께 주요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바이오랩허브 인천 유치, GTX-D Y자 노선 반영 등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그 외에도 박 시장은 6월 중 시장이 직접 군구와 함께 여름철 재난준비상황을 점검하도록 준비할 것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시민안내 강화, 내년도 국비 5조원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 등을 지시했다.

<붙임1> 행사 슬로건과 상징물

<붙임2> 행사 프로그램(안)

※ 관련 사진은 15:30분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 [only.webhard.co.kr](http://only.webhard.co.kr) )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붙임 1

## 행사 슬로건과 상징물

### □ 행사 슬로건

- (선정결과) “인천 독립 40년,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
- (선정과정) 온라인 시민 투표\*에 445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선정  
\* 市 홈페이지 토론 TalkTalk, 5.12.~21.(10일간) 진행

### □ 행사 상징물

- (선정결과)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행사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천 독립 40년 행사 시민자문단」\* 이 선정(6.3.)  
\* 인천전문가, 도시·행정 전문가, 행사·기획 전문가, 일반시민,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 (상징물의 의미)
  - 물방울 모양 3개는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상징
  - 특히 물결로 표현된 패턴은 층층이 쌓아온 긍지의 역사를 의미
  - 40년의 붉은색은 서해의 장엄한 태양을 의미하며 자유로운 형태와 함께 희망차고 역동적인 인천의 미래를 의미



## 붙임 2

## 행사 프로그램(안)

구분 \ 일자	6.30.(수)	7.1.(목)	7.2.(금)	7.3.(토)	7.4.(일)
주간	<b>시민시장 대토론회</b> (14:00~16:30, 스타트업파크)	<b>인천 독립 40주년 기념식</b> (10:30~11:20, 시청)  <b>옛 시장관사 개방행사</b> (18:00~19:30, 시장관사)	<b>시장 기자간담회</b> (14:00~15:00, 제물포구락부)	<b>기념토론회 1</b> - 인천 독립 40년 의미와 미래 - (13:00~15:00, 제물포구락부)  <b>기념토론회 2</b> - 도시·마을 동네 토크콘서트 - (15:30~17:00, 제물포구락부)	
저녁	<b>개항장 문화재 야행</b> (17:00~21:00,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b>감독과의 만남/ 인천영화열전</b> - 인천스텔라 - (18:30~22:00, 제물포구락부/시장관사) - 18:30~20:00 감독과의 만남 - 20:00~22:00 영화심영	<b>인천영화열전</b> (20:00~22:00, 시장관사)	
전일	<b>기념전시1: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b> (7.1~7.31, 시장관사)  <b>기념전시2: “나무가 들려주는 인천이야기”</b> (6.22~8.31, 제물포구락부)  <b>송학동 역사산책길 루어, 오감이 즐거운 인문로드</b> (7.1~7.4, 11:00(1회) 17:00(2회)/플라티너스-제물포구락부-인천시민복지-이음1977 등)				

[범례] ① 기념·개방행사 ② 언론·학술행사 ③ 참여·체험행사 ④ 전시·관람행사